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와 함께 걸어주세요.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2018년 두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부자들 덕분에 두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땀방울과 눈물이
2019년에는 축복을 담은 눈송이처럼 맺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설일 김남조

2018년 두루를 후원해 주신 분

강민제 강성국 강원일 강울리 강재영 강정은 고기승 곽은비 구나영 구동균 구상수 구자형 구정모 권창영
김무자 김병선 김석동 김성수 김승현 김영문 김영수 김옥림 김용길 김용진 김윤희 김이안 김이태 김재원
김종윤 김지형 김지홍 김진희 김태형 김판수 김하영 마한얼 민창욱 박경택 박보영 박보희 박성철 박시원
박영주 박은정 박정수 박지선 배성진 백종현 사봉관 서문용채 성창익 손계준 송한사 신 민 신재형 신혜주
심민현 심희정 안상훈 안중성 양영태 엄선희 여연심 오자성 유동호 유현정 윤영규 윤재훈 이광현 이광선
이병주 이상현 이상희 이 샘 이소영 이승민 이승현 이우규 이우진 이은영 이주언 이준길 이지혜 이채린
이태영 이태현 이형규 이혜은 이홍재 이 훈 임성택 임이지 장영은 장윤정 장 품 장향석 장현진 장효정
정승민 정 원 정 진 정 철 채희석 최명지 최정규 최정욱 최창민 최철웅 최초록 하지인 한철웅 황인영
(가나다 순)
법무법인(유) 지평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두루 FUN-딩

후원 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예금주 : 사단법인 두루)
140-012-354395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기부자 인터뷰

지평 골프모임

강원일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는 지평 골프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루에도 “나이스 샷”을 날려주는 골프모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루와 골프는 다소 어색한 조합인 것 같은데,
두루와 골프모임은 어떻게 이어져 있나요?**

지평에는 사내골프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일년에 두 번(3~4월, 10~11월)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버디와 파의 개수에 따라 기부금을 정해서 두루에 기부를 합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모임의 아름다운 전통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골프모임을 하면서 김지형 대표변호사님께서 기부를 제안하셨습니다. 골프모임에 김석동 고문님, 양영태 대표 변호사님을 포함하여 고문님, 시니어 파트너변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성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고 서로 나서서 골프를 칠 때보다 더 경쟁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두루의 기부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후배 변호사들까지 도움 수 있어서 골프모임도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두루의 후배 변호사들과 지평의 선배들이 앞으로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겠네요. 두루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